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찾아가는 양조장
전통방식 그대로 (첨가물 0% 수작업 100%)
제주고소리술 오메기맑은술
제주술익는집 | 역사적가치가 크고 술맛이 좋다하여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SINCE 1989 창간 31주년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拏日報 제9126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0년 6월 1일 월요일(음력 4월 10일)

재정운영 압박 요인 작용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지방비 부담 지속 증가… 체계적 관리 차원
불요불급 사업 제외… 시급한 현안 위주로
현길호 의원 '관리체계' 마련 조례안 추진

지방비 부담 비율이 지속 상승하면서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 체계적 관리체계가 구축될지 주목된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 대표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법제 검토와 부서 의견을 수렴중인 조례안 초안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6월중 입법예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 초안에는 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실적 등을 분석·평가, 보조사업의 연장평가에 결과와 연계한 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 기준 등,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추진부서와의 연계방안 등을 담은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운영계획을 2월 임시회기 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관행적으로 편성해온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시의성 있는 현안 해결 사업 위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종의 '필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고보조금은 제주 전체 예산의 비중있는 의존재원으로 재정총량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올해 본예산 기준 1조494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26%를 차지한다. 반면 지자체의 대응사업비가 포함돼 있어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동안 도의회에서는 국고보조금 증가율이 전국 국고보조금 증가율보다 낮고, 지방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국고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체계를 주문해온 바 있다.

올해 제주도가 추진한 '재정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비의 지방비 부담 비율은 2015년 30.3%에서 2019년 33.4%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현재 미편성된 지방비 부담액을 포함할 경우 34.2%로 올라간다.

현길호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을) 무조건 줄일게 아니라 재정상황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라면서 전체적인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회와도 사전 의논하는 절차를 밟자는 취지의 제도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으니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은 빼고 현안 위주의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윤4월 초파일에 열린 봉축법요식 코로나19 사태로 1개월 연기됐던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사상 처음 윤달 4월 초파일인 지난달 30일 열려 관음사에서 코로나 19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회향식을 겸한 봉축법요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봉축법요식에서는 육법 공양, 관불 의식, 축원과 봉축사 등이 진행됐다. 강희만기자

내달부터 제2공항 연속토론회 개최

제주도-도의회-국토부-시민단체, 4회 개최 합의
입지 타당성·공항인프라 확충 등 주요쟁점 선정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절차 타당성 및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7월부터 연속 개최된다.

특히 이번 연속 토론회에서는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문제와 공항인프라 확충 등을 놓고 공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지난달 29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28일 열린 제3차 사전 토론회에서 연속 토론회를 오는 7월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토론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면 연속토론회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특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 주관으로 총 4회에 걸쳐 개최된다.

공개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비상도민회의) 관계자 또는 추천자가 각 3명씩 참여한다. 일반시민도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국토부의 경우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실무책임자가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비상도민회의에서도 토론 내용을 충실하게 준비한 인사를 토론자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연속토론회는 7월 2일 제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매주 1회씩 개최되며, 주요 쟁점 토론과 마지막 종합토론으로 계획됐다. 3차 토론회 이후 상호 합의를 통해 종합토론 이전에 1회를 더 추가할 수 있다. 4차 토론회가 추가될 경우 종합토론은 7월 30일 열린다.

토론 의제로는 공항 인프라의 필요성(수요·수용력·환경·주민수용성 등), 기존 공항 활용 가능성(ADPi 권고안 포함), 입지선정 타당성(성산·신도·정석 후보지) 등을 확정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박원철 위원장은 "비공개 사전토론회를 통해 연속토론회에서 논의될 주요 쟁점을 도출했다"며 "양측의 사전합의를 통해 앞으로 공개 연속토론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안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느냐는 물음에 박원철 위원장은 "예단할 수 없지만 논란이 오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에 대해 숙의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활동기간이 끝나는 올해 12월 전에 결론을 내야하지 않느냐 싶다"고 피력했다.

앞서 제주도와 도의회 특위는 국토부와 비상도민회 참여로 비공개 사전 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지난 28일 열린 제3차 사전 토론회에서는 제2공항 입지선정 적절성 문제를 놓고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입지 선정의 타당성 확보방안(기준 적용 및 평가방법)에 대해 이견을 보였고, 특히 평가항목 중 장애물과 공역에 관한 의견에서는 토론자들간 의견 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된다

학생 1인당 30만원씩… 이달 중 선불카드로

오는 12일까지 동의서 접수

오늘부터 학생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원 절차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신청 동의서를 받는다고 지난 달 29일 밝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기간 내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늦어도 8월 31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 내에 동의서를 제출하면 6월 중으로 소속학교에서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13일 기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 중·방송통신 고에 적을 두고 있는 ▷재학생 ▷유예학생 ▷휴학학생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돌봄 쿠폰을 받는 만 7세 미만 학생은 제외된다.

사용기한이 9월 30일까지인 교육희망지원금의 사용 용도는 ▷방역물품 구입 ▷도서구입 ▷체험활동비 ▷식비 ▷원격수업 학습환경 조성비 등으로 권장하고 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 유흥업소, 레저 관련 업체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희망지원금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원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희망을 키우겠다"며 "학부모들은 지원 절차를 잘 숙지해 접수기간 내에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희망지원금 동의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등 교육희망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학부모가 수령 주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령 주체는 학생 또는 학부모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SLOW PLASTIC SURGERY CLINIC
심의필 제170516-중-83148호
축 개원기념일
슬로우 성형외과의원
여러분이 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항상 보답하는 슬로우성형외과의원이 되겠습니다.
Ch 슬로우성형외과의원
제주시 노형 8길 3, 우학빌딩 5~7층
064)900-2600